

2021년 1월 22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업종 차별화 속 혼조 마감

대형 기술주, 태양광 Vs. 항공, 에너지, 철강, 중소형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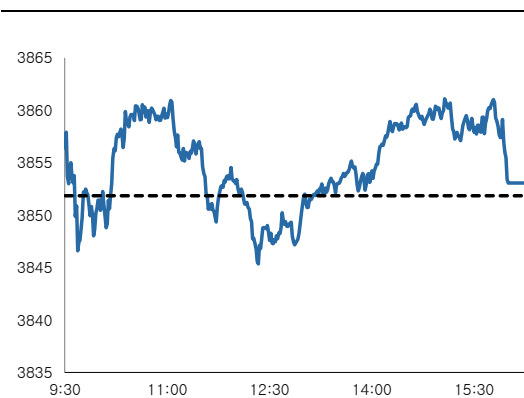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실적 주목 속 대형 기술주 강세

미 증시는 애플(+3.67%)에 대한 실적 호전 기대가 높다는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전일에 이어 대형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며 상승 출발. 이후 아메리칸 에어라인(-2.10%) 실적 부진으로 컨택트 관련주가 하락하고, 연초대비 상승이 컸던 에너지, 금융, 중소형주가 부진하자 한 때 하락 전환. 시장은 실적에 주목하며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되는 종목군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며 혼조 마감(다우 -0.04%, 나스닥 +0.55%, S&P500 +0.03%, 러셀 2000 -0.89%)

애플(+3.67%)이 27 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모건스탠리가 예상을 크게 상회한 결과를 기대하며 목표주가를 144 달러에서 152 달러로 상향 조정하자 강세. 모건스탠리는 애플이 아이폰의 5G 채택, 재택 근무 확산, 앱 스토어 등 제품 및 포트폴리오 강세로 기록적인 실적을 발표 할 것이라고 전망. 모든 부문에서 두 자릿수 성장을 기대하며 수요 강도 또한 지속돼 올해 실적도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할 것이라고 주장. 특히 애플의 대만 공급업체가 3 개월 연속 전년 대비 매출 성장이 가속화 되어 아이폰 판매가 강력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 이러한 애플의 실적 개선 가능성은 다음 주 실적 발표하는 그 외 대형 기술주에 대한 기대로 확산되며 전일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감

인텔(+6.46%)은 지난 10 월 가이드스를 26 억 달러나 상회한 200 억 달러 매출을 발표했고 연간 매출은 전년 대비 8% 증가한 777 억 달러 발표 후 장중 8% 넘게 급등. 그러나 칩 제조 관련 내용은 발표하지 않음. 반면, 유니온 퍼시픽(-4.71%)은 예상을 크게 상회한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올해 운송 물량이 4~6% 증가하는 등 견고한 실적을 보일 것이라고 발표 했으나 하락. 경영진이 예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등이 계획대로 진행 돼야 하나 불확실하다고 경고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여기에 아메리칸 에어라인(-2.10%)은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후 항공 산업 회복에 대한 우려도 언급하자 컨택트 관련 종목들이 하락. 한편, 알코아(-12.39%)가 실적 발표 앞두고 더 많은 비용과 알루미늄 출하량 감소 전망 등을 발표하자 급락. 이는 철강, 에너지, 광산업 등의 하락 요인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목	Close	D-1	지수종목	Close	D-1
KOSPI	3,160.84	+1.49	홍콩항셍	29,927.76	-0.12
KOSDAQ	981.40	+0.38	영국	6,715.42	-0.37
DOW	31,176.01	-0.04	독일	13,906.67	-0.11
NASDAQ	13,530.92	+0.55	프랑스	5,590.79	-0.67
S&P 500	3,853.07	+0.03	스페인	8,122.10	-1.00
상하이종합	3,621.26	+1.07	그리스	796.77	-0.50
일본	28,756.86	+0.82	이탈리아	22,428.93	-0.9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실적 개선 기대 높은 애플을 중심으로 강세

실적 개선 기대가 높다는 발표에 애플(+3.67%)이 강세를 보이자 아마존(+1.34%), 알파벳(+0.22%), 페이스북(+2.02%), MS(+0.28%) 등 여타 대형 기술주도 동반 상승 했다. 태양광 업체인 솔라엠티(+6.73%)는 모건스탠리가 커버리지를 시작하며 “태양은 계속 빛난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자 상승 했다. 퍼스트솔라(+5.68%), 선파워(+17.15%) 등도 동반 급등했다. 포드(+6.17%)는 F-150 픽업트럭의 전기차 버전이 제조 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강세를 이어갔다. 패스트리(+6.75%)는 바이든 행정부가 틱톡 규제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 부각되자 실적 개선 기대 속 상승 했다.

유니온 퍼시픽(-4.71%)은 양호한 실적 발표 불구 백신 접종 지연으로 불확실하다고 언급하자 하락했으며 노퍽(-3.18%), CSX(-0.72) 등도 부진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2.10%)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자 델타항공(-2.18%), 보잉(-1.91%)은 물론 부킹닷컴(-2.32%)등 레저업체도 하락했다. 알코아(-12.39%)는 비용 증가와 알루미늄 출하량 감소 언급하자 급락했고, 이는 US스틸(-6.47%) 등 철강을 비롯한 광산 업종 부진의 요인이었다. 인텔(+6.46%)은 장중에 실적 컨퍼런스 콜 이후 급등했는데 가이던스를 크게 초과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시간 외로 매물 출회되며 2% 넘게 하락 중이다. IBM(+1.21%)은 견고한 실적 발표 불구 시간 외로 6% 넘게 하락 중이다.

주요 ETF

ETF 종류	동락률	ETF 종류	동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3.37%	대형 가치주 ETF(IVE)	-0.53%
에너지섹터 ETF(OIH)	-4.52%	중형 가치주 ETF(IWS)	-0.61%
소매업체 ETF(XRT)	+0.80%	소형 가치주 ETF(IWN)	-1.16%
금융섹터 ETF(XLF)	-1.07%	대형 성장주 ETF(VUG)	+0.48%
기술섹터 ETF(XLK)	+1.29%	중형 성장주 ETF(IWP)	-0.11%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77%	소형 성장주 ETF(IWO)	-0.81%
인터넷업체 ETF(FDN)	+0.28%	배당주 ETF(DVY)	-0.69%
리츠업체 ETF(XLRE)	-0.33%	신흥국 고배당 ETF(DEM)	-0.40%
주택건설업체 ETF(XHB)	+0.70%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11%
바이오섹터 ETF(IBB)	-0.89%	미국 국채 ETF(IEF)	-0.14%
헬스케어 ETF(XLV)	-0.47%	하이일드 ETF(JNK)	-0.06%
곡물 ETF(DBA)	+0.18%	물가연동채 ETF(TIP)	+0.24%
반도체 ETF(SMH)	+1.55%	Long/short ETF(BTAL)	+0.22%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319.12	-3.43%	-2.21%	+10.78%
소재	470.43	-1.50%	-2.58%	+4.52%
산업재	752.13	-0.81%	-0.85%	+1.07%
경기소비재	1,372.53	+0.55%	+1.88%	+7.30%
필수소비재	671.69	-0.41%	-1.57%	-2.48%
헬스케어	1,374.72	-0.50%	+0.77%	+5.75%
금융	507.78	-1.05%	-2.38%	+6.23%
IT	2,346.56	+1.32%	+2.71%	+4.12%
커뮤니케이션	225.88	+0.26%	+5.10%	+3.33%
유틸리티	319.15	-0.61%	+0.21%	+2.80%
부동산	228.63	-0.34%	+3.19%	+2.6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매물 소화 가능성 부각

MSCI 한국 지수 ETF 는 2.27%, MSCI 신흥 지수 ETF 는 0.18% 상승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00.2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에 이어 오늘도 미 증시는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한 가운데 혼조 마감했다. 특히 일부 호재성 재료가 유입된 업종과 종목들의 강세가 이어졌다. 다만, 최근 상승이 컸던 에너지, 금융은 물론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항공 등이 하락하는 등 차별화가 진행 되었다. 이렇듯 미국은 물론 글로벌 주식시장이 실적에 주목하며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한국 증시도 이러한 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인텔(+6.46%)은 장 중 실적을 발표 했는데 분기 매출은 200 억 달러로 10 월 가이드를 26 억 달러 초과하여 전년 대비 1% 감소했다고 발표 했다. 이처럼 견고한 실적을 발표한 후 6% 급등 했으나, 시간 외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장 마감 후 실적 발표한 IBM(+1.21%)도 양호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매물 출회되며 시간 외로 6% 넘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물론 ECB 통화정책 회의에서 라가르드 총재가 더블딥을 언급해 향후 몇 개월 안에 추가적인 완화 정책을 기대하게 만들었다는 점은 우호적이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일부 종목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을 보이는 가운데 제한적인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주택 지표 개선 지속

12 월 주택 착공건수는 전월(157.8 만건)이나 예상(155.8 만건)을 크게 상회한 166.9 만건을 기록했다. 착공 허가건수도 전월(163.5 만건)이나 예상(161 만건)을 크게 상회한 170.9 만건을 기록해 여전히 주택시장 활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주(92.6 만건) 보다 감소한 90 만건을 기록해 예상과 부합했다. 4 주 평균은 82 만 4,500 건에서 84 만 8천으로 증가해 여전히 고용위축 우려를 높였다.

1 월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는 지난달 9.1 보다 크게 개선된 26.5 로 발표되었다. 신규수주가 무려 1.9 에서 30.0 으로 급등했으며 고용 지수 또한 5.6 에서 22.5 로 상승했다. 이는 향후 ISM 제조업지수 개선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투자심리 개선에 우호적이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달러 약세 확대

국제유가는 API 원유재고 보고서에서 예상치인 120 만 배럴 감소가 아닌 260 만 배럴 증가로 발표되자 하락 했다. 여기에 최근 상승에 따른 매물 소화 과정 또한 이어진 모습이다. 다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이어지고 바이든 행정부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로 낙폭은 제한 되었다

달러화는 예상을 크게 상회한 경제지표 결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부양책에 대한 기대 속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자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라가르드 ECB 총재가 유로존 더블딥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여전히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는 발표 후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역외 위안화 환율은 달러 대비 보험권을 유지한 가운데 여타 신흥국 환율은 달러 대비 혼조 양상을 보였다.

국채금리는 주택과 제조업지표 등이 예상을 크게 상회한 결과를 내놓자 상승 했다. 더불어 바이든의 행정명령을 통한 부양지표 표명 또한 금리 상승 요인 중 하나였으며, 지수 상승 등으로 인한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진 점도 상승 요인 이었다.

금은 달러 약세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 따른 매물 출회되며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최근 상승에 따른 매물 소화 과정을 보이며 혼조양상을 보였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24% 상승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53.13	-0.34	+0.32	Dollar Index	90.092	-0.42	-0.16
브렌트유	56.10	+0.04	-0.57	EUR/USD	1.2166	+0.50	+0.09
금	1,869.30	-0.05	+0.56	USD/JPY	103.52	-0.02	-0.27
은	25,854	+0.34	+1.10	GBP/USD	1.3730	+0.56	+0.30
알루미늄	1,997.50	+0.86	-0.40	USD/CHF	0.8853	-0.49	-0.33
전기동	8,021.50	-0.29	-0.34	AUD/USD	0.7761	+0.18	-0.22
아연	2,709.00	-0.70	-1.74	USD/CAD	1.2634	-0.02	-0.05
옥수수	524.25	+0.43	-0.05	USD/BRL	5,3598	+0.98	+3.00
밀	660.75	-1.05	+0.04	USD/CNH	6.4638	+0.03	-0.01
대두	1,370.25	+0.05	-2.56	USD/KRW	1098.20	-0.19	+0.02
커피	126.45	+1.00	+0.96	USD/KRW NDF1M	1099.91	+0.17	+0.3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1.108	+2.73	-2.17	스페인	0.124	+5.00	+6.50
한국	1.702	0.00	-3.00	포르투갈	0.074	+5.30	+6.90
일본	0.043	-0.60	+0.20	그리스	0.649	+1.10	-3.00
독일	-0.496	+3.30	+5.40	이탈리아	0.685	+6.70	+4.3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